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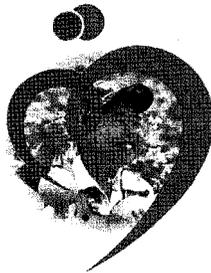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쉼터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지난 1998년 4월 8일 감염인전용상담소를 개설한 이후, 작게는 간병 및 대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크게는 감염인의 고충과 당면한 과제를 인권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쉼터의 주기능을 정보제공과 상담에 두었으며 기타 부수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2개월에 한번씩 발행되는 K-Plus와 PC통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은 전화상담·내방상담·출장상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최신정보(치료, 감염현황, 에이즈소식 등),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접수, 환자간병알선, 취업정보, 결혼주선, 쉼터이용예약, 신분노출을 꺼리는 감염인과의 상담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내방상담은 치료정보제공, 동료상담, 전문의상담, 휴식기능, 친목 및 대화기능, 건강유지감좌, 오락기구 이용 등의 기능을 하며, 출장상담은 운신이 어려운 감염인이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감염인 등을 위해 내방상담과 전화상담을 겸한



감염인이 병원에서 부족한 환자간병 등 환자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쉼터를 매개로 하여 감염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도움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제공합니다.

K-Plus는 매월 6일에 1,200부가 발행되며 전국보건소 관리자, 국립보건원 방문자, 쉼터 이용자, 병원, 가톨릭운영 쉼터, 기독교 쉼터 등으로 발송되어 UNAIDS, WHO, 미국 JAMA, 일본 SHIP 등의 최신 치료·현황, 감염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올 9월까지 PC통신을 통해서는 310만건, 인터넷으로는 530만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98년 4월 개소이후 전화상담은 총 1,607건, 내방상담은 모두 344건, 출장상담은 12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인이 환자로 발병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입원시간 병문제입니다.

연맹의 쉼터 상담원이 몇 개 병원을 순회하며 간병을 하다가 병이 악화되어 병원순회를 그만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염인이 환자를 간병한다는 것은 환자의 상황이해 등의 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간병인이 환자로부터 기회 감염을 얻을 위험과 간병활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자간병문제는 감염인 복지차원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연맹에서는 일본의 헛터 "네스트"의 Buddy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병원 등에서 자발적으로 요청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병원환자간병이나 가정방문간병을 할 간병인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병원출장 92건, 간병요청 53건, 병원정기방문 48건, 외출·가사·목욕 등 36건, 강연 13회, 언론사 인터뷰 12회 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활, 취업, 구인구직을 K-Plus 통하여 알려, 헛터를 통해 직업알선 및 주선 1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염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친선화합의 모임이나 감염인을 위한 동료 간병인 모임, 에이즈치료제 복용과 관련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간병과 감염 등에 대한 방안마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산악회를 결성

하여 휴일에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합니다.

또 감염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부터 9월까지 두명의 감염인에게 생활비를 보조하였고 97년

헛터이용 안내



<헛터이용 안내>리플렛

11월부터 98년 9월까지는 모자 감염인에게 생활비를 보조했습니다. 헛터를 방문하는 감염인에게 여비와 식사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업체의 물품을 지원받아 어려운 감염인에게 제공하는 후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 '생명의 터' 운영자가 헛터를 방문하고 가톨릭이 운영하는 에이즈감염인 헛

터에 K-Plus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에 개선되어 약 1년간 운영된 헛터의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설 초기에 전문가들은 감염인이 신분 노출을 꺼려 헛터이용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1년정도 운영한 결과, 감염인의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헛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감염인이 병원에서 부족한 환자간병 등 환자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헛터를 매개로 하여 감염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헛터 감염인의 에이즈 예방강연 및 언론사 인터뷰를 통하여 대국민 예방활동이 이루어 지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교류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한 감염인 헛터사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정부차원의 감염인 관리의 고충을 훌륭하게 해소하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A**

박 승 미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상담실장